주 52시간제 본격 시행

탄력근로 6개월 '엇박자' 與대표-노동, 어느장단에

"직장인 저녁을 잡아라" 영화·백화점 할인 풍성

(호영표)

(김영주

더민주 "6개월 탄력근로제 도입해야" 노동부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 없어"

이달부터 '주 52시간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연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기업들이 근무가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 노동시간을 주52시간이내로 맞추는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가운데 여당 원내대표가 이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 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단위 기간 연장에 대해 부정 적인 의견을 보여 당정이 엇박자를 내는 모습이다.

탄력근로제란 일정 기간 내에 근로시간을 늘리고 줄이면서 조절하는 제도이다. 근로시간을 일일, 일주일 단위로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2주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면 업무가 많은 첫 주에는 58시간 일하고 상대적으로 일이 줄어든 다음주에는 46시간 일해 평균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탄력근로제의 최대 단위기간은 취업규칙에 의할 경우 2주, 노사 간 서면합의에 의할 경우 3개월로 각각 규정돼 있다.

지난 달 27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중견기업 최고경영자(C EO) 조찬 강연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과 관 련해 "적어도 3개월로 돼 있는 것을 6개월 정도로 하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을 할 때 탄력근로제를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근로시간 단축이) 전면 시행되는 것은 2022년 1월이니까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는 것은 그 전에 하도록 여야가 합의한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이틀 뒤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홍 원내 대표의 발언에 대해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가 없다



신세계 영등포점 영업시간 변경안내

7월 2일부터 영업시간이 변경됩니다

11:00 - 20:00

7월 1일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1일 오전 서울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에 7월 2일부터 영업시간이 11시부터 20시로 변경된다는 문구가 붙어 있다. 신세계는 지난 24일 "7월2일부터 업계 최초로 본점과 강남점, 경영제휴점인 충청점을 제외한 전국 10개 매장의 개점시간을 기존 오전 10시30분에서 11시로 30분 늦춘다"고 밝혔다. 신세계백화점의 개점시간 전면 변경은 1979년 이후 39년 만이다.

며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간 단축 시행을 이틀 앞두고 연기자회견에서 "탄력근로제에 관한 것은 산업과 기업마다 다를 수 있다. 그 부분에 관해 하반기에 실태조시를 할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다 6개월을 하면 노동시간 단축의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 장관의 발언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나 산업과 기업 구분 없이 전반적으로 6개월로늘리는 데는 반대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국회에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보 완하는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 4건이 계 류 중이다. 주요 내용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 대, 업무에 따른 근로시간 구체화 등이다.

탄력근로제와 관련해 노동계는 사실상 근로시 간 연장이라고 반대하고 있지만, 여당 원내대표가 탄력근로제에 대한 공감대를 구하기로 한 만큼 20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이 완료되면 국회 환경 노동위원회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주52시간 근무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저녁 시간 이 여유로워진 직장인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마 련됐다. 유통·레저 업계는 영화·놀이시설 할인부 터 퇴근 후 쇼핑족을 위한 백화점 세일 등을 평일 저녁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배치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월드는 이달부터 8월까지 사업장별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우대 행사를 진행한다.

서울 잠실 롯데월드 어드벤처는 '저는 2만 퇴근' 이벤트를 통해 직장인 고객과 동반 1인의 자유이용권을 각 2만원(동반 어린이는 1만5000원)에 판매한다.

잠실 롯데월드몰 아쿠아리움에서는 '시원하게 칼퇴, 시원한 아쿠아로' 행사를 열고 직장인 고객과 동반 3인까지 입장권을 각 1만8000원(어린이 1만5000원)에 내놨다.

서울 롯데몰 은평점의 키즈카페 '언더씨킹덤' 역시 직장인 고객과 동반 3인까지 할인 혜택을 제 공한다.

롯데월드 사업장 3곳에서 진행하는 이번 행사 는 평일 오후 6시 이후 방문하는 직장인 고객이 대 잠실 롯데월드 '저는 2만 퇴근' 이벤트 롯데시네마, 월~금요일 영화관람 혜택

상이다. 매표소에서 사원증이나 '명함+신분증'을 보여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롯데시네마는이달2일부터24일까지 직장인을 대상으로 평일(월~금) 영화관람 혜택을 제공한 다

이 기간 평일 오후 6시~10시59분 사이에 사원 증을 가지고 전국 롯데시네마 직영관을 방문하는 직장인 관람객에게는 관람료를 할인해준다.

1인 관람 시에는 영화관람권과 콤보(팝콘+콜라)를 각 2천원 할인해주고, 2인 관람 시에는 영화관람권과 스위트 콤보를 총 2만2000원에 제공한다.

주요 백화점은 평일 쇼핑 수요 증가에 대비해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롯데백화점은 오는 15일까지 '퇴근 후 쇼핑세일'을 진행한다.

롯데는 평일 오후 5시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는 금액할인권이 담긴 '세일 우편광고물(DM)'을 전 점에서 110만 부 이상 배포한 상태다.

쿠폰을 소지한 사람은 식품관 10만원 이상 구매시 5천원, 패션 상품 20만원 이상 구매시 1만원 할 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대백화점은 젊은 직장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행사를 주중에 배치하고 있다.

현대 압구정본점은 오는 2~5일 5층 대행사장에서 '압구정 마켓'을 열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인기인 엘레강스초이·드레이든·시호주얼리 등 패션·잡화 브랜드 상품을 판매한다.

무역센터점은 평일인 9~12일 지하 1층 대행사 장에서 여름 바캉스 인기아이템 특가전을 열고 10여 개 브랜드의 원피스·수영복 등 바캉스 상품 을 판매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文 대통령, 하반기 경제 '속도·체감' 과제

文 대통령, 오늘 휴가서 복귀 기재부 중심 경제정책 방향 제시

문재인 대통령이 2일 휴가에서 복귀해 하반기 국정을 본격적으로 챙길 예정인 가운데 경제에선 이제 '속도'와 '체감'이 중요하게 됐다.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에 이어 북미정상회담까지 한반도를 둘 러싼 국제 문제가 빠른 속도로 풀려가고 있는 가운데 경제 문제가 상대적인 속도 전에서 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는 이달 중순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을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올 해 3% 성장을 장담한 바 있다. 하지만 일 자리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내수 도 부진한 모습이어서 곧 뚜껑이 열릴 경 제정책방향에서 정부가 지금과 앞으로 의 경기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지가 관 건이다.

1일 청와대에 따르면 감기몸살로 지난 다. 취임 후 집무실어 주목요일과 금요일 연기를 낸 문 대통령 설치해놓고 일자리를 은 주말을 보낸 후 월요일부터 업무에 복 공언한 대통령이 집권 귀한다. 청와대는 그동안 문 대통령의 쌓 자리뿐만 아니라 경인 피로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쉬는 동 성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정식 보고 또는 메모 형태 등 어떤 보 사를 단행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고도 하지 않은 채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했다.

하지만 휴식을 끝낸 문 대통령에게 경제 문제가 당장 현안으로 다가오고 있

앞서 문 대통령은 청와대 정책실내에서 경제와 일자리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경제수석과일자리수석을통째로교체했다. 취임 후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설치해놓고 일자리를 직접 챙기겠다고 공언한대통령이 집권 2기를 맞으면서 일자리뿐만 아니라 경제분야에서 가시적성과가 나타나지 않자 사실상 경질성 인사를 다행한 것이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달 26 일 인사를 발표하면서 교체 이유에 대해 "훨씬 더 광범위하게 소통하면서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인사로 해석해달라"고 설명하며 '속도'를 강조했다.

취임 후 지난 1년이 경제정책 등에 방향을 잡고 밑그림을 그리는 시기였다면이젠 가시적인 성과가 중요한 때가 됐다는 의미다.

아래 두 수석을 한꺼번에 내보내고 일 부에선 이를 놓고 경질성 인사라고 평가 를 받은 것에 대해 장하성 정책실장은 '슬픈 느낌'과 같은 의미인 '비감'했다는 게 청와대측의 전언이다.

장 실장은 두 수석의 이임 자리에서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의 정체성과 방향을 흔들고 싶 어하는 사람들은 자기방식대로 해석하 고자하지만 여러분들이 결코 책임을 지 고 떠나는 게 아니다. 새로운 동력을 만 들기 위해 떠나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장 실장은 "새로운 변화의 시 작이고, 새로운 추진력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bada@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이 1일 일본 도쿄 하얏트 리젠시호텔에서 열린 '역내포 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기간 장관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가시적성과 조기달성 노력하자"

산업부, RCEP 장관회의 참석

산업통상자원부는 '역내포괄적경제동 반자협정(RCEP)' 제5차 회기간 장관회 의가 1일 일본 도쿄 하얏트 리젠시 호텔 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RCEP(Regional Comprehensive E conomic Partnership)는 아세안(ASE AN) 10개국 및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아·태지역 자유무역협정(FTA)을 말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11월 RCEP 정상들이 '2018년 타결 목표'를 설정한 이래 두 번째로 개최되는 장관회의로, 우리측 김 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포함해 아세안・일본・중국・호주・뉴질랜드・인도 등 16개국 장·차관들이 참석했다.

이날 김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보호무역주의확산등으로자유무역체계가 도전을 받는 최근 통상환경 속에서 RCEP의 조속한 타결은 자유무역을 통한 공동번영의 가능성을 대내외적으로 시현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상품·서비스·투자 등 시장접근 분야중요 이슈를 중심으로 가시적 성과를 조기 달성하기위해함께 노력하자"고강조했다.

/세종=최신웅 기자